

2006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결과

‘맛있는 유혹, 행복한 체험’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2006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가 9월 7일(목)~9월 9일(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울 삼성동 소재 COEX 태평양홀에서 개최된 이번 브랜드 전에는 111개 브랜드(한·육우, 돼지, 낙농, 육계, 산란계, 양봉, 가공품생산자브랜드)가 참석했으며, 당행사는 농림부에서 주최,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단체에서 주관했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후원했다. 본 행사는 9월 7일 11시에 개막식이 있었으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송석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등 축산유관기관단체 및 소비자단체대표, 축산농가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주요행사는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막일과 다음날인 8일 2006 인분의 초대형 불고기관에서 조리한 전국 8도 한우, 돼지고기 불고기 시식 행사에 K-1 환농증인 최홍만 선수를 초청하여 눈길을 모았다. 또 ▲축산물브랜드 홍보관 설치 운영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연·홍보 ▲고기철기도 예술이다, 명장 선반 대회 ▲푸줏간을 아십니까, 정육점 변천사 ▲패션쇼가 아니라 패션쇼, 재미있는 목장체험 ▲고기 먹고 힘쓰자, 주무기와 장격과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한편 최대 75%까지의 브랜드 축산물 할인 판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결과 품질균일성, 고품질, 물량공급능력, 위생·안전성, 브랜드 관리 등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브랜드 업체가 선정되었다. 전국에 있는 한우·돼지 분야의 생산브랜드 중 이름있는 브랜드가 모두 존전한 가운데 국무총리

상을 받은 영예의 대상에 한우부문의 경우 내관령한우(경영체 평창영원정진축협), 돼지부분은 하이포크(경영체대상팜스코*)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한우부분은 지리산순한한우(경영체 순한한우브랜드사위단), 돼지부분은 크린포크(경영체그린진)가 선정됐다. 우수상 한우부분은 흥천늘푸름한우(경영체흥천축협), 하동솔잎한우(경영체 하동축협)가 돼지는 농실맥포크(경영체 신왕중죽영농법인), 의성마늘포크(경영체 의성축협)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 고품질상은 남해화진한우(경영체 남해한우영농법인)와 실라리안소백산축농(경영체소백산축농영농법인)이, 위생·안전성상은 함평전지한우(경영체 함평축협)와 보성회천녹돈(경영체 보성그린티영농법인)이 선정됐다. 대상은 국무총리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 부이사정채자금 20억원이, 최우수상은 농림부장관상장과 각 상금 300만원, 부이사자금 10억원이 수여됐다. 우수상은 농림부장관상장과 함께 각 상금 200만원, 부이사자금 5억원이 수여됐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란 “앞으로도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